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8월 4일 (제126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사과나무가 되기까지

올해로 목회 40년이 된다.

1984년 나는 작은 사과나무 씨 하나를 광명 땅에 심었다. 사실 작은 씨 하나를 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지 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저 나는 쉬지 않고 물을 주고, 소독하고, 가졌을 뿐이다. 몇 년이 흐르자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나는 그 사과를 먹지 않고 더 많은 사과 씨를 심었다. 그렇게 40년이 흐르니 이제 나는 누구와 견줄 수 없는 대농이 되었다. 광명시 인북 유치원 지하에서 한 명을 놓고 시작한 내가 지금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다.

나는 이런 이치를 알고 경험했기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말한다.

“오늘의 달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

눈앞의 이익이나 안위를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것이다. 꿈을 가지라는 것이다.

내가 40년을 한결같이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세계교구’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랬다. ‘별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라고. 내가 별레처럼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졌더라면 나는 누군가와 타협하고 편안한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멀리 보는 새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꿈을 바라다보며 모든 것을 이겨냈다.

나는 지금도 사과 씨를 심는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심어서 언제 거두냐고 한다. 그러나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후손이 거둘 것이라 믿기에 나는 쉬지 않고 오늘도 사과 씨를 심는다. 나로 인해 전 세계가 사과로 배부를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나로 인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일까.

꿈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꿈을 버린 것이다. 우리가 사과를 먹어치우고, 달걀을 먹어치운 것이다. 당장 먹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씨앗을 심으면, 달걀을 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사과를 창고에 들이는 날이 오고, 양계장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꿈을 가지고 키워라!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마라

6월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도원 공사, 이는 오로지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수련회 때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뛰놀던 자리가 오지환 장로님 기념식당으로 바뀌어 없어지자 목사님은 이참에 기도원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셨다. ‘생각이 설계사라면, 말은 설계한 대로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의 생각과 말씀대로 기도원은 정말 아름답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꾸며졌다.

많은 새 친구 아이들이 보였다. 이는 이시대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배가 부흥을 선포하셨고, 담당 목사님을 비롯한 교사,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직접 예배 인도를 해주셨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마라. 생각이 썩은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

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너희의 생각이 10년, 20년 뒤의 너희를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생각, 큰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이 주제를 수련회 첫 시간에 언급하신 이유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듯 생각대로 인생도 그려진다. 목사님의 잠언처럼 ‘인생은 운명이 아니다. 내 생각과 언어로 만드는 작품’이다



제26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2024년 7월 29일~31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기도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총회장 목사님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다. 목사님은 새벽부터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교회 업무와 상담 등을 하신 뒤 바로 현장으로 나오셨다. 모든 현장을 일일이 지켜보시며 작업 지시를 하셨다. 목사님은 작업하는 인원들이 쉬 때 같이 쉬시고, 일할 때는 같이 작업에 참여하시며 지켜보셨다. 목사님은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매번 말씀하셨고, 70이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먼저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변모된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제26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현승 목사님의 개회 예배로 시작되었다. 시작 당일인 월요일, 접수처에서 지켜보니 유난히

냈다. 바다매오는 남들이 구박해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고, 혈루증 걸린 여인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수많은 인파를 뚫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는 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던 15세의 나이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중풍병자와 네 친구다. 중풍병자의 고침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고침 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너희도 생각만 바꾸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있다. 긍정적

목사님은 생각을 바꾸겠다 작성하신 듯 ‘할 수 있다’를 연신 복창시키셨다. 오늘이 성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 중학생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고등학생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찌 될까. 장담하건대 목사님의 바램처럼 각 분야의 수장이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만 바꾸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목사님의 외침이 그래서 더욱 크게 들린다.

끝으로,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어 청년대학부 수련회와 집회까지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단을 휩쓸 것을 믿고 기도한다.

윤예녹 생도

2024
하계산상집회

8월 12일(월)~15일(목), 8월 19일(월)~22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28:1~14)

무의식의 단계에 이르도록 반복하라

제가 예수를 믿고 의식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다 하는 방언을 받고 싶어서 매일 의식적으로 퇴근 후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지 않고, 즐기던 세상 것들도 뒤로 하고 의식적으로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한 듯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바울이 기도시간에 기도 장소에 가듯 저도 무의식 속에서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낳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찬양을 배울 때면 그것이 무의식 상태에서도 입에서 술술 나오기까지 연습합니다. 처음에야 악보를 의식하면서 부르지만, 부르고 부르면 생각하지 않아도 콧노래 부르듯 하게 됩니다. 그 래야 단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운전을 배우면 오른쪽이 엑셀러레이터고, 왼쪽은 브레이크라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의식하면서 반복,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식하지 않아도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자동 인식됩니다. 그 증거로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아, 이쪽이 브레이크지.’ 하고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악이요 인생을 부식시킨다

그렇습니다. 의식적인 것이 무의식적인 것이 되기까지는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어야겠다.’ 하고 매일 의식적으로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무의식 속에도 책을 읽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내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해야지.’ 했으면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의식적으로 운동하면, 늘 운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권투선수인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먹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주먹을 보고 의식적으로 피하지만, 연습을 계속하면 의식의 단계가 줄어들어 반사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 경지에 이르도록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의식적인 것이 무의식적으로 되기 위해서, 즉 습관이

되기까지는 반복에 반복이 필요하고, 그 반복을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이 범인(凡人)을 비범인(非凡人)으로 만드는 촉매제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 무의식인 경지에 이르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습관을 들이기까지 노력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했기에 그들은 부단히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미 하나님

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거둔 성공과 부귀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는 부하게 되느니라”(잠 10:4), “부지런

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시편 78장에는 다윗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쫓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시 78:70~72).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입니다. ‘공교(工巧)함’이란 실력의 탁월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성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버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삼상17:34~35). 다윗은 양 떼를 지키기 위해 늘 물맷돌 던지기를 의식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연습해야지.’ 하며 아침저녁으로, 매일 의식적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물맷돌을 던져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마음의 성실함, 곧 부지런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 손의 공교함’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때려잡았고, 그의 운명을 바꾸게 한 것

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축적된 그의 손의 공교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냥 되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손흥민이 양발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왼발, 오른발을 고루 연습시켰습니다. 왼발잡이가 아닌데도 왼발 연습을 계속 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오는 공은 왼발로, 오른쪽으로 오는 공은 오른발로 자유자재로 차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된 것입니다. 왼쪽으로 공이 오는데 오른발만 사용하는 선수라면 슛이 가능할까요? 이를 보건대, 무의식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을 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처음에는 ‘야식 No!’, ‘하루 만 보!’하며 의식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의식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 해이해지고 맙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 합니다. 믿음 생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시간 기도 하자’, ‘매일 성경 5장씩 읽자’ 해놓고 시간이 가면 흐지부지합니다.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가시덤불이 나고 풀이 지면을 덮고 돌담이 무너진 포도원을 지나며 보게 됩니다. 그 주인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풀을 뽑고, 이곳저곳을 다듬고 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 점차 풀이 땅을 다 덮고 돌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잡초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허물어진 것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잡초가 생기기 전에 의식적으로 잡초를 뽑아줘야 합니다. 나쁜 것들, 악한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뽑아내면 인생의 잡초는 없고, 어디가 조금 무너졌거든 게으름 피지 말고 바로 보수하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

우리가 좋아하고, 희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꾸준히 연구하여 그것이 무의식 상태에서도 행해질 때, 즉 그것들이 습관이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꿈이 우리를 버렸다고. 아닙니다.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게을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도,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명성(名聲)’이라는 두 글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복이 가만히 있는 제게 그냥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는 의식적으로 하루 4시간 이상 기도했고, 의식적으로 세계를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명성 있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공은 편안하기를 거부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원해도 얻지 못하고, 입술로 뿌려도 얻지 못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잠13:4). 성경에 게으름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둔 자와 같아서 결국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지옥이요, 세상에서는 가난의 어두운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게으름을 잘라내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며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제26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7월 29~31일
POWER GOD



이제 다시 뿔 수 있다

이 작품은 명마가 달리다가 발목이 부러진 것을
강력접착제로 붙여서 고치고
깨진 항아리도 접착제로 붙여서 물을 담아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여
다시 뛰라는 의미의 작품입니다

당신의 부러진 마음도, 깨진 육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강력접착제이기 때문입니다

봉우 이초석 목사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는 해외 참가자들도 있다. 그중 한 명이 독일에서 온 루카스 (Lukas Dae-Han Egger) 이다. 그는 팡글 예수전도단 독일 회원의 자녀로 독일 출생이다. 그런데 그의 재능이 범상치 않다. 어린 나이에 독일어, 불어, 영어, 그리고 한국 어까지 능숙한 것은 물론이고, 피아노와 기타까지 다재다능했다. 비결을 묻는 말에 루카스의 대답은 이러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는 뭐든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무엇이든 잘하려면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고 말씀해줬습니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의 말은 진리였다. 늘 목사님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루카스가 증명한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 루카스만의 것일까.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반복, 또 반복하면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의식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어느 순간 무의식 속에서도 자신감이 뿔어져 나오고, 의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그것에 달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어 만인 위에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썩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기만 할 뿐이다. 썩은 뿌리는 뽑아내야 한다. 그리고 루카스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면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린다.

사람들은 운명대로, 팔자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의 생각과 말대로 사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법, 그래서 인생은 내가 말과 생각으로 만드는 작품인 것이다.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결작을 만들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라. 멋진 생각이 멋진 미래를 만들고, 창대한 생각이 미래를 창대하게 만든다. 생각을 바꿔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23:7).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2024년, 원하던 소망이 벌써 이뤄졌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에배에서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크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 집 마련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를 위해 전심으로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 말하며 자신의 소망을 간구한 것처럼, 저도 주님의 성전을 위해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작년 가을, 내 집 마련하려고 1년간 부었던 적금이 만기 되자마자 서울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던 일, 인천 성전 건축을 위해 하루종일 벽돌을 날랐던 일, 기도원 호텔을 봉헌하는 날 장성에 내려가 예배드린 일, 성전 꽃꽂이와 대형 스크린 대어, 카메라 교체에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던 일을 고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도 축복 안 해주실 거예요?”라고 당당히 간구했죠.
원래 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비록 자가는 아닐지라도 알뜰살뜰 저축해 전셋집을 넓혀가는 과정이 감사했고, 제가 사는 집을 반질반질 쓸고 닦으며 예쁘게 가꾸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부동산 폭등장을 마주했고 그제야 주변 아파트를 둘러보니 가격이 두세 배 올라 있더군요.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어찌어찌 마련할 수 있겠지

싶었던 집이 어느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탄하기보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경제 공부였죠. 1년 동안 경제 관련 도서를 100권 정도 읽었고, 경제신문 헤드라인을 보기 시작했고, 퇴근하고 돌아와 몇 시간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올해 초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면서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동네에 있는 A아파트를 원했는데, 저의 예산보다 가격이 높았어요. 그래도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중 어떤 집은 거주 중인 세입자분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중개소에 틈틈이 전화해 집을 볼 수 있게 되면 꼭 연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던 2월 어느 날, 딱 하루만 집을 보여준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방문했죠. 하지만 제가 원하던 가격으로 조정되지 않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예산에 맞는 다른 동네들을 찾아다녔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B아파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계약하기로 마음먹은 날, 불현듯 네이버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A아파트를 검색했더니 제가 방문했었던 그 집이 제가 원하던 가격으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알아보니 세입자분이 아무에게도 집을 보여주지 않자 도무지 매도할 수 없게 된 임대인이 집을 보지 않는 조건으로 싸게 내놓았다는 거

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집을 봤었기에 불안한 마음 없이 즉시 계약할 수 있었죠. 더 불어 잔금을 치르기 전 한 달 동안 집 전체를 수리한 후 이사하고 싶었던 저의 바람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집주인에게 얘기하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않을 예정이라 잔금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이사하기 전까지 타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거주하다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뒤면 저는 새집으로 이사 갑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며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드린 2024년의 소망이 벌써 이뤄졌습니다.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순산케 하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해왔는데, 제가 불안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순탄하게 진행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집, 이곳에 사는 동안 주님께 받을 넘치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에 성도님들이 대답하셨던 모든 소망이 올해 반드시, 반드시 이뤄지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본분에 충실하자

목사님이 자주 비유로 하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시계와 온도계 같은 분이다. 더하거나 빼지 않으신다.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고 행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나태한 직장인과 사업가의 성공, 게으른 학생의 좋은 성적? 기대하지 마라. 공짜는 쥐악에나 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다.”
대학생 때 이 설교를 처음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당시 대학부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하며, 주중엔 대학부실에서 2시간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주말엔 예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학교 성적은 학사경고를 겨우 면할 정도의 하위권이었고,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옮길 생각에 수능, 편입 등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정작 내 본분인 학생 신분에는 게으름으로 일관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 환경에 감사하며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학교 강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공강 시간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열심을 냈다. 그렇게 1학기를 보내고 결과를 받았는데 성적은 올랐으나 장학금을 받을 등수엔 들지 못했다.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데, 방학이 시작될 때쯤 학과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성적장학금 외에 동문장학금이 새로 생겼는데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시고, 장학금을 받겠다는 목표를 이루게 역사해 주셨다. 또한, 졸업 후 입사 면접 때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좋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입사 이후에 알게 되었다.
목표를 정하고 과정을 열심히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진리를 체험한 사건이었다.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내리라 결심해본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송명국 집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가정에서 체감차 마시는 방법

요즈음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여 과잉된 영양섭취로 인해 체중이 늘어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여름철 갈증으로 인해서 시원한 음료도 자주, 많이 드시게 되는데,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찌거나 체중이 줄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성인병과 관절통,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인 운동과 함께 가정에서 보다 손쉽게 체감차를 마시는 것으로도 몸의 독소를 배출시키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감차는 몸에 습기가 많고 혈액순환이 안되어 붓는 체질에 붓기를 빼고 다이어트의 효능이 있으며 여름철 기력도 보강해줍니다.
체감차의 용량은 울무 8g, 갈근 2g, 황기 2g, 목통 2g, 진피 2g, 삼백초 2g, 창출 6g, 감초 2g, 상지 6g으로 1회 복용

시 용량이며, 가정에서 가정용 약달이는 포트나 냄비에 5일 치 약재 용량(곱하기 10)을 넣고 물을 2리터 정도 넣은 후 30분 이상 끓여서 1리터가 남으면 100ml씩 10회에 나누어 냉장고에 보관하신 후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체감차의 재료인 울무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며, 이뇨 작용과 진통 효과가 있으며 몸에 생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갈근은 취으로 몸에 진액을 보충하고 뒷목의 근육을 풀어주며 근육이 뭉치거나 뻣뻣할 때 도움이 되고 피부에 좋습니다. 황기는 맛이 달고 기운을 돕는 역할을 하며 여름철 비위를 튼튼하게 하며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목통은 으름명굴 열매로, 체할 때 도움이 되고 이뇨 효과로 부종을 풀고 요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진피는 항암효

과, 간 기능 개선, 노폐물을 분해하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위장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삼백초는 몸에 생긴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며 간 기능을 개선하고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삼백초를 달인 물로 목욕하면 피부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창출은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고 몸의 습기를 풀어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해주며 관절 통증을 개선해줍니다. 감초는 동의보감에 온갖 독을 풀어주고 모든 약을 조화롭게 합니다. 상지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 배출을 도와 붓기를 빠지게 하며 중성지방을 제거하고 관절통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오늘도 감사하게 잘 사용하는 한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